



한국문학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최전선의 담론을 이끌어가는 본격 문학잡지

『쓰름-문학의 이름으로』

제7호 발행

문학실험실 / 2018년 9월 28일 발행 / 140*240 / 568쪽 / 값 18,000원 / ISSN 2465-7956

발신: 사단법인 문학실험실 (대표 이인성)

수신: 언론사 문화부 문학 담당 기자 / 인터넷서점 홍보 담당자

담당: 최하연 (문학실험실 사무국장) 010-4212-0752

한국문학의 최전선에 있는 잡지, 『숲-문학의 이름으로』 제7호 발행

‘문학은 다시금 무엇일 수 있으며, 새로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2015년 9월 창간한 반연간 문학전문지 『숲-문학의 이름으로』의 제7호가 나왔다. 지난 4년간 이 잡지는 명실공히 한국문학의 최전선에서 가장 첨예하고 깊이 있게 우리 문학의 담론을 형성하고 그 방향성을 점검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잡지의 기본 방향은 문학의 본질을 사유하는 질문 그 자체를 향해 있다. 잡지의 창간사에서 밝힌 대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의해 전 지구적 문화산업의 시대, 대중문화의 시대’에 맞서는 ‘강렬한 부정의식과 저항적 실험 정신을 문학 내부의 동력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해온바, 이번 최신 호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의식이 배어 있는 깊이 있는 글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론과 비평, 그 관계의 재구성 : 역사적 검토와 새로운 문제 제기를 위하여” 특집으로 꾸며

“이론의 영향력이 문학의 영향력을 압도하면서 문학과 문학비평은 어떤 의미에서 이론의 식민지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한국의 비평가는 이중의 식민성 속에 갇히게 되었다. 서구에 대한 콤플렉스와 이론에 대한 콤플렉스가 그를 이중적으로 짓누르고 있다.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문학을 독자적으로 느끼고 독자적으로 사고할 것, 문학을 읽고 옥석을 가려내어 가치 있는 것의 의미를 밝혀낸다는 비평 고유의 임무에 충실할 것, 문학이 아무리 인기가 없더라도 그것을 인기 있는 이론의 도구로 소모하지 말 것. 이것이 단순하고 당연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원론적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면, 이번 특집의 필자들이 오늘날 복잡하게 꼬여 있는 비평과 이론의 관계에 관해 개진한 깊이 있는 철학적·역사적 성찰을 읽어보시기 바란다.

이론의 송고함과 창조로서의 비평 | 정과리

1968의 스펙테이터들, 한국 현대 비평의 원점으로서의 68혁명: 프랑스의 김봉구, 미국의 김우창, 일본의 김윤식의 1968 사론에 대하여 | 황호덕

김현, 이론과 비평, 그리고 수용: 구조주의 그리고 그 이전과 이후 | 조재룡

정신분석학 이론 수용의 맥락: 프로이트와 라캉 이론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소묘 | 강응섭

이론의 수용을 넘어 ‘이론비평’을 위하여 | 강우성

이론적 삶의 본질을 찾아서: 비이분법적인 관계적 이원론을 지향하며 | 김대산

이 특집의 총론에 해당되는 정과리 씨의 글은 문학 공간이 대학 제도에 의해 완벽하게 장악됨에 따라 비평이 이론의 노예로 전락했다고 진단하면서 이 경향을 역전시켜야 한다는 것, 실천으로서의 비평이란 이론의 명령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노예적 작업이 아니라 매번 이론을 변화시키는 창조이자 생산이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한다. 황호덕 씨의 글은 김봉구·김우창·김윤식이 혁명의 소용돌이에 있는 유럽·미국·유럽·일본을 현지에서 겪었던 1968년 전후의 시기를 한국 현대 비평의 원점으로 파악한다. 이때 문제 되는 것은 단순히 머리를 통한 이론의 수용이 아니라 이론과 삶의 경험이 뒤섞여 만들어진 지극히 개인적인 수용, 육화된 수용이다. 조재룡 씨의 글은 한국 현대 비평의 이론 수용의 범례로서 김현을 탐구한다. 당대 유럽에서 생생하게 전개되는 현대적 이론을 읽고 번역하고 한국문학의 현장 비평을 통해 그 이론을 시험하며 그 과정에서 자기 나름의 이론을 수립하고자 한 김현의 광범위한 저술 활동은 이론과 실천 사이의 생산적 교호 작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강응섭 씨는 한국문학에서 정신분석학적 이론의 비평적 수용의 역사를 추적하며 그 양상이 당대의 미학적, 이념적 지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규명하고자 시도한다. 강우성 씨의 글은 한 편으로 왜 비평이 이론을 필요로 하는지를 묻고, 문학 자체의 논리에서 그 답을 찾는다. 다른 한 편으로 1990년대 이후의 들뢰즈 수용을 둘러싼 몇몇 논쟁을 검토하면서 이론 수용을 넘어선 이론적 논의는 이론 역시 비평적 읽기의 대상이 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결론 내린다. 특집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이론과 비평의 이분법 자체를 문제 삼는 논쟁적인 글이다. 김대산 씨는 도처에서 당연한 것처럼 전제되는 이론과 비평의 이분법 뒤에 경험과 진리 인식 사이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그리하여 세계와의 본질적 관계를 상실한 근대적 주체의 편견이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청준 10주기 기념 포럼으로 열린 <제4회 문학실험실 포럼: 이청준 문학의 발화점들> 전문도 실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문학실험실 포럼’은 이청준 작가의 10주기 기념 포럼으로서 이청준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기획되었으며, 대표적인 이청준 연구자들이 이청준의 거대한 문학 세계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해주었다. 서영채 씨는 이청준을 한국문학사의 한 전환기를 대표하는 작가로 규정하고, 문학사적 전환을 가져온 이청준 문학의 특징을 문학의 재계몽화와 부끄러움이라는 두 열쇳말로 효과적으로 요약해 낸다. 박혜경 씨는 4·19를 통한 개인의식의 성장과 그 좌절의 경험이 이청준에게 이데올로기적 가상으로서의 개인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켰다고 가정하면서 이를 초기 단편들을 통해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있다. 이윤옥 씨는 이청준의 1968년 발표작 「매잡이」와 2003년 발표작 「문턱」을 비교해 읽으면서 나중의 소설에서 앞 소설의 본질을 반복하면서 외연을 확대해가는 작가의 글쓰기 방식을 조명한다. 이수형 씨는 이청준의 『조율사』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 「소문의 벽」을 검토하면서 이청준 문학이 오늘의 역사 연구에서 밝혀내고 있는 1970년대 권력의 중층적 작동 양상을 일찍이 문학적으로 포착하였고 결론 내린다. 이상과 같이 이청준 문학에 대해 이번 포럼에서 제출된 흥미로운 테제들은 앞으로 이청준 문학 연구에 풍성한 토론 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문의 신작 중편 <강물에 떠내려가는 7인의 사무라이>가 ‘텍스트 실험 공간’에 실리는 등 작품란도 풍성

김가경, 김효나, 민병훈, 편혜영의 단편소설과 문보영, 박정대, 서정학, 하재연의 시 작품을 풍성하고 즐겁게 만나볼 수 있으며, 장석원 시인이 김수영 시의 산문성을 천착한 <불온한 산문, 김수영과 현대시> 논문도 ‘그때 그 실험’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4회 김현문학패 발표와 문학실험실의 ‘틈-창작문고’ 시리즈 신간 리뷰 등 읽을거리가 어느 때보다 풍성한 호가 될 것이다.

차례

특집 : 이론과 비평, 그 관계의 재구성-역사적 검토와 새로운 문제 제기를 위하여

이론의 숭고함과 창조로서의 비평 | 정과리

1968의 스펙테이터들, 한국 현대 비평의 원점으로서의 68혁명: 프랑스의 김봉구, 미국의 김우창, 일본의 김윤식의 1968 사론私論에 대하여 | 황호덕

김현, 이론과 비평, 그리고 수용: 구조주의 그리고 그 이전과 이후 | 조재룡

정신분석학 이론 수용의 맥락: 프로이트와 라캉 이론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소묘 | 강웅섭

이론의 수용을 넘어 ‘이론비평’을 위하여 | 강우성

이론적 삶의 본질을 찾아서: 비이분법적인 관계적 이원론을 지향하며 | 김대산

특집에 덧붙여 - 현장의 목소리: 비평가의 현실과 고뇌

한국문학 비평가의 (독자의) 과오 | 김주선

이념적, 이론적, 비평적 | 이은지

이론의 여지가 없음 | 황현경

제4회 문학실험실 포럼 : 이청준 10주기 기념 포럼_이청준 문학의 발화점들

한글세대 이청준의 미션 | 서영채

개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청준의 초기 단편들 | 박혜경

본질을 품은 외연의 확장: 「매잡이」와 「문턱」 | 이윤옥

다른 얼굴을 한 권력: 이청준의 『조율사』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 「소문의 벽」을 중심으로 | 이수형

그때 그 실험

불온한 산문, 김수영과 현대시 | 장석원

텍스트 실험 공간

강물에 떠내려가는 7인의 사무라이 | 정영문

시와 소설

다소 기이한 입장의 C | 김가경

바다가 보이는 방/가라앉는 대화 | 김효나

지리상의 발견과 바닐라라떼에 관한 의견 차이 1화 외 2편 | 문보영

장화를 신고 걸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연꽃 사이를 헤치며 | 민병훈

시 외 2편 | 박정대

실험실 풍경 외 2편 | 서정학

어쩌면 스무 번 | 편혜영

평균을 외 2편 | 하재연

제4회 김현문학패 발표

김현문학패 소개

선정의 말

수상소감 시집들을 어디로 옮길까. 세 번째 바람이 왔으면 좋겠다 | 신영배
분석과 평가 | 백민석

선정작가론

여와女媧의 시: 『그 숲에서 당신을 만날까』를 중심으로_신영배론 | 조강석
문자라는 이데아와 허의 시플라크르_백민석론 | 노태훈

시시비비

진보와 보수 | 이기형

문학실험실 신간 리뷰

안티테제로서 빈 공간의 사유_최하연 시집 『디스코광광 위의 해시계』 | 이병국

언어(실험) 욕망_서준환 연작극텍스트 『죽음과 변용』 / 김태용 연작소설집 『음악 이전의 책』 | 선우은실

제5호 필자 소개

(가나다 순)

강우성 | 영문학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학교 버팔로대학 대학원 영어영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잠재성의 심연: 아감벤과 바틀비」 「폭력의 정치학」 등의 논문과 『미국문학사』 『영미문학의 길잡이 2』 『더 넓은 세계문학』 등의 여러 공저와 로텔의 『어리석음』 등의 역서를 펴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웅섭 | 정신분석학자. 종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풀발레리대학교 정신분석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몽펠리에개신교신학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프로이트』 『자크 라캉의 세미나 읽기』 『라캉과 기독교의 대화』 등 6권의 저서와 『정신분석대사전』 등 다수의 번역서를 펴냈다. 현재 예명대학원대학교에서 정신분석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가경 | 소설가. 1965년 충청북도 진천에서 태어나, 동아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2009년 『부산일보』와 2012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물리모를 부는 화요일』을 펴냈다.

김대산 | 문학평론가. 1974년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비교문학전공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06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하여, 평론집 『달팽이 사냥』을 펴냈다. 현재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주선 | 문학평론가. 1983년 전라남도 화순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5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했다.

김효나 | 소설가. 1982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도자공예과를 졸업했다. 2016년 『숲-문학의 이름으로』를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2인용 독백』을 펴냈다. 현재 비영리 예술 단체인 '로사이드'를 운영하면서 전시 기획 등의 작업을 하고 있으며 발화 모임 '줍줍'의 일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노태훈 | 문학평론가. 1984년 경상남도 산청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3년 『중앙일보』의 '중앙신인문학상'을 통해 등단했다.

문보영 | 시인. 1992년 제주도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했다. 2016년 『중앙일보』의 '중앙신인문학상'을 통해 등단하여, 시집 『책기둥』을 펴냈다.

민병훈 | 소설가. 1986년 대전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를 수료했다. 2015년 『문예중앙』을 통해 등단했다.

박정대 | 시인. 1965년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문학사상』을 통해 등단하여, 『단편들』 『내 청춘의 격렬비열도엔 아직도 음악 같은 눈이 내리지』 『아무르 기타』 등 8권의 시집을 펴냈다. 현재 <인터내셔널 포에트리 급진 오랑캐 밴드> 멤버로 활동 중이다.

박혜경 | 문학평론가. 1960년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상처와 응시 오르페우스의 시선으로 등 4권의 평론집과 문학 연구서 『이념 뒤에 숨은 인간』을 펴냈다.

서영채 | 문학평론가. 1961년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소설의 운명』 『죄의식과 부끄러움』 등의 4권의 평론집과 『사랑의 문법』 『아침의 영웅주의』 등의 한국문학 연구서, 『인문학개념정원』 등의 교양서를 펴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정학 | 시인.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95년 『문학과사회』로 등단하여, 시집 『모험의 왕과 코코넛의 귀족들』 『동네에서 제일 싼 프랑스』를 펴냈다.

선우은실 | 문학평론가. 1991년 인천에서 태어나,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어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6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이기형 | 언론정보학자·문화연구자.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어버너شم페인교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언론정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병국 | 시인·문학평론가. 1980년 경기도 강화에서 태어나, 201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시인으로, 2017년 『중앙일보』의 '중앙신인문학상'을 통해 문학평론가로 등단했다.

이수형 | 문학평론가. 1974년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하여, 평론집 『문학, 잉여의 몫』과 문학 연구서 『1960년대 소설 연구』 『이청준과 교환의 서사』를 펴냈다. 현재 명지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윤옥 | 문학평론가.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 인문대학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평론집 『비상학, 부활하는 새, 다시 태어나는 말—이청준 소설 읽기』 『시를 읽는 즐거움』 등을 펴냈다.

이은지 | 문학평론가. 1986년 태어나, 중앙대학교 대학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2014년 『창비』 신인평론상을 통해 등단했다.

장석원 | 시인·문학평론가. 1969년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 『대한매일』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아나키스트 리듬 등 4권의 시집을 펴냈다. 현재 광운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과리 | 문학평론가. 1958년 대전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불어불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문학, 존재의 변증법』부터 『뢰비우스 분면을 떠도는 한국문학을 위한 안내서』에 이르는 12권의 평론집과 『근대소설의 기원에 관한 한 연구』라는 불문학 연구서를 펴냈다. 현재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영문 | 소설가. 1965년 경상남도 함양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작가세계』를 통해 등단하여, 『검은 이야기 사슬』 『오리무중에 이르다』 등 6권의 소설집과 『하품』 『어떤 작위의 세계』 등 5권의 중·장편소설을 펴냈다.

조강석 | 문학평론가. 1969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아포리아의 별자리들』 등 3권의 평론집과 『비화해적 가상의 두 양태』라는 연구서를 펴냈다. 현재 연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이며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조재룡 | 문학평론가. 성균관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8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 『비평』을 통해 등단하여, 『번역의 유형들』 등 3권의 평론집과 연구서 『앙리 메쇼닉과 현대 비평』을 펴냈고, 다수의 프랑스 문학서를 번역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불어불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편혜영 | 소설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아오이 가든』 『사육장 쪽으로』 등 4권의 소설집과 『재와 빨강』 『죽은 자로 하여금』 등 5권의 장편소설을 펴냈다. 현재 명지대학교 인문대학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하재연 | 시인. 1975년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하여, 시집 『라디오 데이즈』 『세계의 모든 해변처럼』을 펴냈다.

황현경 | 문학평론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2년 『문학동네』를 통해 등단했다. 현재 서울예술대학교와 추계예술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황호덕 | 문학평론가·영화평론가. 1973년에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및 일본 도쿄대학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9년 『문학사상』을 통해 문학평론가로, 2001년 『KINO』를 통해 영화평론가로 등단했다. 『근대 네이션과 그 표상들·타자, 번역, 에크리튀르, 국문담론』 『사유의 공간』(공저) 등을 펴냈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